김정일장군님과
조선의 민족문화전통

차　　례

머리말

1. 민속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7

1) 민족음식과 식생활풍습을 적극 장려하도록-------------------7
떡국을 해먹을 때에는 밥을 해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8
떡의 가지수도 가르쳐주시며 ---------------------------------9
록두지짐의 맛을 보아주시며 ---------------------------------10
평양랭면의 진짜맛을 살리시려고-----------------------------10
강냉이국수의 감칠맛 ---------------------------------------11
조선음식의 진미를 한번에 맛볼수 있는 유명한 민족료리-신선로 -----12
단고기료리를 국보적인 음식으로 되게 하시려고 ----------------13
조선사람은 어디 가나 조선의 넋을 잊지 말아야 한다 -------------14
총각김치로 바꾸어부르도록---------------------------------15
민족료리의 《원종장》으로----------------------------------16

2) 옷차림에서 민족적전통을 살려나가도록 --------------------17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다고 하시며-----------------17
녀성들속에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을 적극 장려하도록 ---------18
고유한 옷색갈 ---19
옷을 하나 해입어도 민족성이 살아나게 하시려고-----------------20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20

3) 살림집과 주택생활을 민족적풍습과 생활양식에 맞게 ----------22
모두가 자기의 요구에 맞게---------------------------------22

조선의 고유한 맛이 나는 훌륭한 건물로 ------------------------23
불고기와 돗자리--23
다시 걸려진 새로운 문패 -------------------------------------24
새로 낸 문--25

4) 민속명절을 적극 장려하도록-------------------------------26
민속명절의 유래도 깨우쳐주시며--------------------------------26
깊이 관심하신 설명절풍습 -------------------------------------28
정월대보름의 유래도 알려주시며--------------------------------29
추석에 묘보러 가는것은 조선인민의 오랜 풍습이라고 하시며---------29

5) 민속놀이를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31
묘리와 묘술이 있어야 한다-------------------------------------31
크게 보신 작은것 ---32
녀성들에게 매우 좋은 운동-------------------------------------33
단순한 놀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34
모란봉에서 울린 대황소상 금소방울소리 ------------------------35

6) 민족적례의도덕의 계승발전에도 힘을 넣어-------------------37
조선인사법의 우수성 --37
인륜도덕의 시초---38
잊지 말고 써보내야 할것 ---------------------------------------39

7) 민족음악무용의 계승발전에 큰 힘을 넣어--------------------40
민족악기개량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40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어은금-------------------------------40
민속무용 《돈돌라리》가 완성되기까지--------------------------42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을 보시고 ------------------------ 43
민속무용 《봉산탈춤》을 보아주시며 ---------------------------- 44
다시 태여난 옛춤 -- 444
바뀌여진 《무사춤》의 주인공 ---------------------------------- 46
어깨장단이 제일 좋다-- 46

2. 력사유적유물의 보존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48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를 돌아보시며 ----------------------- 49
정광사를 돌아보시면서 -- 51
기록영화에 담겨진 고구려벽화무덤 ------------------------------ 53
정방산을 찾으신 사연-- 54
심원사를 찾으시여 -- 56
석왕사를 찾으시여 -- 59
개심사의 오랜 력사유물을 귀중히 여기시며----------------------- 61
량천사를 찾으시여 -- 63
깊은 관심을 돌리신 금야은행나무 ------------------------------- 65

맺는말

머 리 말

흔히 말하기를 력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과 래일을 비추어보는 거울이고 민족문화유산, 민족전통은 그 력사의 유구함과 그 민족의 창조적재능을 엿볼수 있게 하고 민족정신을 반영하고있는 증거물이라고 한다.

어느 민족에게나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자기 민족고유의 민족문화유산, 민족전통이 있다. 민족전통은 근로인민대중의 풍습,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이 오랜 생활과정에 대를 이어오면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생활풍습으로서 민족생활의 여러 분야에 깃들어있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을 헤아리는 오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피줄과 언어를 가지고 세상에서 보기 드문 단일민족으로서 단란하게 살아오는 과정에 조선민족고유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민족의 력사가 유구하고 선조들이 창조한 민족문화유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그것이 어느때나 민족의 매 성원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 원천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땅속에 묻힌 진주보석도 캐내야 진가를 알수 있고 빛을 뿌리는것처럼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도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보호해주는 은혜로운 품이 있어야 한다.

지켜주고 빛내여줄 참다운 보호자가 없었던탓으로 하여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에게 수난당하고 여지없이 짓밟혀왔던 조선의 민족문화유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혜로운 품이 있어 자기의 가치를 되찾게 되였으며 그와 더불어 조선민족의 력사는 온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발굴되고 지난날 외래침략자들의 야수적인 민족문화말살책동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파괴되였던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복구보존되여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민족문화전통이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중시하시고 여기에 힘을 넣으시여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온 세상에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재적인 예지와 주체적안목으로 대국주의자들과 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외곡되고 복잡하게 얽혔던 력사문제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여 조선이 인류문화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확증해주시고 단군조선으로부터 력사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거쳐 면면히 이어온 조선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주체적립장에서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력사에 묻혀있던 수많은 문화유산들을 새롭게 발굴고증하며 외래침략자들에 의하여 파괴된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개건하도록 이끄시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을 민족의 재보로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뜻을 받들어 조선의 력사를 바로잡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옳바로 평가하고 해명하시여 정의로운 민족사를 더욱 빛내여주시였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재능이 깃든 문화유산들이 민족의 력사와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재보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령도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력사유적들과 명승지들을 찾으시고 민족유산보호사업이 사람들에게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깊이 심어주는 교양사업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조상전래의 우수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여 온 나라에 민족의 넋과 향취가 차넘치게 하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조선민족의 현대력사를 찬연히 빛내여주시였을뿐아니라 반만년의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쳐주신 조선민족의 어버이,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이 도서에서는 조선의 민족문화전통을 빛내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하많은 혁명일화들 가운데서 그 일부를 수록하였다.

1. 민속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서 중요한것은 민속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유산가운데서 락후하고 반동적인것은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모든것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토대우에서만 사회주의의 새 문화와 생활기풍을 창조할수 있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민속전통은 근로인민대중의 풍습, 다시말하여 인민대중의 오랜 생활과정에서 이루어지고 대를 이어 전통적으로 지켜지는 생활풍습을 말한다.

민속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은 인민들속에서 력사적으로 창조되여 대를 이어 전해오는 우수하고 아름다운 풍습을 적극 찾아내고 살려나가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민속전통에는 민족음식, 민족옷차림, 민족살림집, 민속명절, 민속놀이, 민족적례의도덕 등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속전통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1) 민족음식과 식생활풍습을 적극 장려하도록

매개 나라와 민족의 음식이나 식생활풍습은 민족적특성과 민족전통을 대표하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민족음식과 식생활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가장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추세에 따라 옷차림은 바꿀수 있어도 먹는것만은 바꿀수 없다.

조선사람의 식탁에는 의례히 김치나 국수와 같은 민족음식이 오르기 마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음식과 식생활풍습을 빠짐없이 찾아내여 시대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민속명절음식을 장려하는 사회적기풍을 세우며 민족료리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떡국을 해먹을 때에는 밥을 해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 92(2003)년 1 월 25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설명절에 해먹는 떡국에 대하여 교시하신적이 있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설명절에 떡국을 해먹는것이 전통적인 풍습으로 되여왔다고, 지금 일부 사람들이 설명절에 떡국을 먹는것을 보면 떡국에 밥을 같이 먹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떡국과 밥은 다 흰쌀로 만든것이라고, 그러므로 떡국을 밥과 같이 먹는것은 2중식사를 하는것으로 된다고, 앞으로 떡국을 해먹을 때에는 밥을 해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예로부터 조선에서는 설명절음식의 첫 순서로 떡국을 꼽았다.

떡국은 다른 국과 달라서 주식물을 먹지 않고도 식사를 대신하는 음식이다.

그런데 떡국에 밥을 말아먹는것과 같은 식생활풍조가 나타난것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식생활풍습을 모르는데서 생긴 현상이였다.

사소한것이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런 현상을 제때에 바로잡고 식생활에서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더욱 발양시켜나가도록 깨우쳐주신것이였다.

떡의 가지수도 가르쳐주시며

주체 76(1987)년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점심식사를 하게 된 일군들은 마침 추석날이라 햇쌀로 찰떡을 치기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 떡의 가지수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떡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해먹어온 민족음식의 하나로서 그 가지수가 많을뿐아니라 볼품이 있고 영양가도 높으며 맛도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하는 찰떡만 해도 떡감과 고물의 특성에 따라 그 가지수가 많은데 대하여 실례를 들어 가르쳐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있고 민족마다 자기의 전통적인 민족음식을 가지고있지만 우리 조선사람만큼 맛좋고 다양한 민족음식을 가지고있는 민족은 아마 세상에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하여 응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록두지짐의 맛을 보아주시며

주체 72(1983)년 5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류관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가까이로 불러앉히시고 청류관의 료리를 합평하자고 하시며 먼저 수저를 드시였다.

록두지짐의 맛을 보아주신 그이께서는 록두지짐은 가루를 보드랍게 하고 김치와 돼지비게를 넣어 만들어야 한다고 따뜻이 가르쳐주시였다.

예로부터 조선에서 록두지짐이라고 하면 평안도지방의것을 제일로 일러주었다. 그것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이 고장의 록두지짐은 물망에 간 록두가루에 배추김치와 돼지비게를 섞어 지졌으므로 독특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나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조선인민이 즐겨 만들어 먹어온 록두지짐은 평안도특산음식의 하나로 보통때에는 물론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음식상이나 명절음식상에 오르군 하였다.

료리합평, 그이를 모시고 이날에 있은 합평은 단순한 합평이 아니였다. 이것은 록두지짐 하나를 놓고서도 조상전래의 우수한 음식전통을 살려 민족음식의 질을 높여주시려는 그이의 은정어린 조치가 뜨겁게 비낀 인민에 대한 사랑의 합평이였다.

평양랭면의 진짜맛을 살리시려고

주체 51(1962)년 9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소문도 없이 평남면옥을 찾아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수는 국수물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양랭면의 특징의 하나가 국수물이 시원하고 달며 새큼한 맛이 잘 어울려 감칠맛이 있는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아무리 국수가 잘되여도 국물맛이 없으면 국수맛이 제대로 안난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호평을 받을수 있도록 국수를 잘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주체 72(1983)년 8월 어느날 옥류관에 나오신 그이께서는 육수를 소고기로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닭고기로 만들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닭고기 70%, 돼지고기 15%에 통무우를 넣어 육수를 만들면 비리지도 않고 맛이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때로부터 몇달이 지난 12월초 일군들을 통하여 옥류관에서 육수를 만드는 정형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며 이번에는 육수의 맛을 떨구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육수는 끓였다 인차 식히면 맛이 푹 떨어지므로 서서히 식혀 랭동고에 넣었다가 그 물에 국수를 말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73(1984)년 1월초에는 한 일군을 부르시여 새해의 첫 과업으로 평양랭면의 진짜맛을 살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양랭면은 독특한 맛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때문에 그의 고유한 맛을 더 잘 살리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평양랭면의 특징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주체 96(2007)년 9월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강냉이국수물은 고기국물로 하지 말고 오이랭국에 양배추김치물을 두어 만들며 꾸미로는 양배추와 고구마잎줄기, 버섯, 풋고추, 미역줄기 같은것을 볶아놓고 삶은 닭알을 반알정도 같이 놓아주면 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해도 다 저물어가던 12월 중순 그이께서는 또다시 강냉이 국수와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반적으로 국수를 씻을 때 찬물을 쓰는데 강냉이 국수를 찬물에 씻으면 국수발이 뻣뻣해진다고, 강냉이국수는 실내온도와 같은 온도의 물에 씻어야 국수발이 매끈매끈해지고 감칠맛이 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지난 시기 고급재료가 꼭 들어가야만 국수맛이 살아난다고 여겨온 강냉이국수가 오늘 어디서나 흔한 재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감칠맛을 돋굴수 있는 맛있는 국수로 사람들의 호평을 받기까지에는 해박한 식견으로 그 비결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조선음식의 진미를 한번에 맛볼수 있는 유명한 민족료리-신선로

신선로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이름난 음식이다.

원래 신선로란 음식을 끓여먹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그릇을 가리키는 이름이던것이 음식맛이 하도 좋아 점차 음식이름으로 바뀌여진것이다.

주체 66(1977)년 어느날 신선로를 보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민족료리의 하나인 신선로는 세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정말 신선로와 같은 우리 나라 민족료리는 이를데없이 훌륭하다고 교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0 여년전에 벌써 옥류관에서 신선로를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신선로는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다고, 신선로에는 고기, 물고기, 남새, 산나물을 비롯하여 수십가지의 음식감이 들어가며 단백질, 기름, 비타민, 광물질, 탄수화물 등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카로리도 높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신선로를 낼 때에는 매 사람들에게 숟가락과 빈 접시를 같이 내야 한다고 봉사방법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던것이다.

주체 93(2004)년 6 월 민속음식품평회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선로료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음식이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료리라고 하시면서 다른 나라에도 신선로 비슷한 료리가 있기는 하지만 해삼과 새우와 같은 해산물이 들어간 우리 나라의 신선로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 96(2007)년 5 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신선로는 조선민족료리의 우수성을 대표할수 있는 명료리라고, 신선로료리는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만든 료리로서 그 맛이 특별히 좋고 영양가가 높을뿐아니라 그릇까지 화려하여 사람들의 구미를 돋구며 조선음식의 진미를 한번에 맛볼수 있게 하는 유명한 민족료리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단고기료리를 국보적인 음식으로 되게 하시려고

언제인가 민족음식을 더욱 발전시켜주시려고 평양단고기집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단고기집

료리사들이 단고기료리에서 조선민족음식의 특색과 맛을 살리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시였다.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아안은 평양단고기집 일군들의 뇌리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걸어온 잊지 못할 날들이 감회깊이 되새겨졌다.

평양단고기집을 통일거리의 명당자리에 훌륭한 조선식건물로 번듯하게 일떠세우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

언제인가는 단고기장을 만드는데서 비결은 물을 어떻게 끓이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며 료리방법을 세심히 가르쳐주시고 또 언제인가는 료리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원자재가 아니라 료리사의 창조적열정과 재능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단고기료리를 만들도록 고무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자신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해주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생각하고있다고 하시면서 평양단고기집 일군들과 료리사들이 자신의 의도를 명심하고 단고기료리를 계속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조선사람은 어디 가나 조선의 넋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체 60(1971)년 3 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외국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예술인들을

부르시였다.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그 나라 음식이 어떻던가, 먹기 괜찮던가고 물으시였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음식이 맞지 않아 애로를 느끼다가 먹음직한 통배추김치를 마주하고 기뻐하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전화로 대사관일군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치를 담가서 예술단성원들에게 자주 가져다주라고 하신 당부가 생각나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무들이 이번 기회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나서자란 제 나라, 제땅이 제일이라는것을 가슴속깊이 느꼈을것이라고 하시며 조선사람은 어디 가나 조선의 넋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간곡하게 교시하시였다.

총각김치로 바꾸어부르도록

주체 97(2008)년 6 월 새로 개건된 청류관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여러가지 료리들을 전시해놓은 곳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였다.

빨간무우로 담근 김치에 시선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이것이 무슨 김치인가고 물으시였다.

앞에 놓여있는 종이에 분명히 《빨간무우김치》라고 씌여있는데 무슨 김치인가고 물어보시니 일군들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였다.

이윽고 한 일군이 머뭇거리면서 빨간무우김치라고 말씀올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아니라고,

총각김치라고 하시는것이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빨간무우김치는 총각김치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도록 하여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연한 잎줄기가 붙어있는 어린 무우로 만든 김치를 총각김치라고 불렀다고, 빨간무우로 만들었다고 하여도 예로부터 전해오는대로 총각김치라고 부르는것이 좋겠다고 따뜻이 일깨워주시였다.

민족료리의 《원종장》으로

옥류관은 조선인민이 자랑하고 사랑하는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이름난 식당이다.

옥류관에서 만든 갖가지 료리가 오늘과 같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은정어린 조치의 결과이다.

일찌기 민족료리를 발전시키는것을 민족성을 고수하는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옥류관을 조선료리발전의 《원종장》으로 꾸려주시였다.

민족료리의 오랜 력사와 고유한 전통을 깨우쳐주시고 료리분야에서 민족적전통을 훌륭히 살려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서 오늘은 전국의 식당들에서 옥류관의 조선료리법을 배워 보급함으로써 조선민족료리가 더욱 발전하고있다.

2) 옷차림에서 민족적전통을 살려나가도록

민족옷은 민족성을 가장 집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고 그가 어느 민족인가 하는것을 쉽게 알수 있는것은 민족옷의 형식에서 비쳐나오는 고유한 민족성때문이다. 민족적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민족옷이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조선옷은 그 아름답고 우아한 특성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그것은 조선옷의 독특한 형태와 고상한 무늬, 은은한 색갈에 조선민족의 감정과 취미, 고상하고 락천적인 생활양식이 그대로 체현되여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옷차림을 장려하고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다고 하시며

조선옷에는 우아하고 정결한것을 즐기는 조선민족의 감정과 지향이 그대로 어리여 어데 가나 뛰여나고 볼수록 돋보인다.

조선의 선조들이 조선옷을 만들어입기 시작한 때로부터 유구한 세월이 흘렀지만 조선옷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오늘도 인민들속에 널리 장려되고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부가 양복을 입고 결혼식을 하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식날 신부에게 조선치마저고리를 입히는것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습이라고 하시면서 옷차림에서 민족성을 살려나갈데 대하

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민족성은 풍속이나 례의도덕에서도 나타나지만 옷차림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조선옷은 보기도 좋고 입기도 편리하다고, 특히 녀성들이 입는 치마저고리는 세상에 자랑할만하다고 하시였다.

녀성들속에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을 적극 장려하도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대초 몸소 조선민속박물관을 찾으시고 조선녀자옷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그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녀자대학생교복으로 조선치마저고리를 정해주시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 69(1980)년에 전국조선옷품평회를 열도록 하시여 전통적인 민족옷차림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더욱 아름답고 우아한것으로 발전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결혼식날 녀성들의 옷차림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녀성들이 시집갈 때에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좋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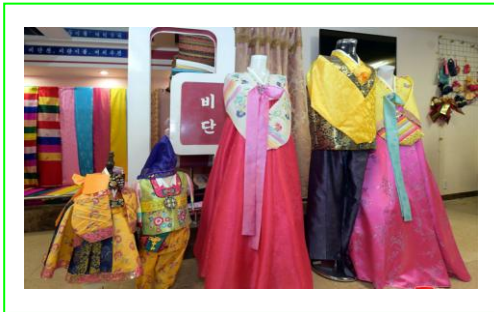
혁명가는 생활에서도 자기의 민족성을 존중하는 충실한 애국자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고유한 옷색갈

주체94(2005)년 4월 중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옷의 고유한 색갈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옛날부터 조선사람들은 흰색이나 유순한 색을 좋아하였다고 하시면서 알랄달락하거나 칙칙한 색갈은 고유한 조선옷의 색갈이 아니라고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산수수려한 자연환경과 정갈하고 고상한것을 좋아하는 민족적정서에 어울리게 옷색갈도 밝고 환한 느낌을 주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색을 좋아하였다.

조선민족이 예로부터 사랑하고 즐겨온 이러한 옷색갈에는 아름답고 고상하며 강의한 조선민족의 성격과 품성, 정서와 기호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옷색갈과 옷차림에 대하여 관심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성을 고수하고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옷을 하나 해입어도 민족성이 살아나게 하시려고

언제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어느 한 양복점을 찾으시고 새로 만든 옷견본들을 보아주시던 때의 일이다.

옷견본들은 사람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갖가지 색갈의 천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태로 만들어져있었다. 그런데 그 옷들속에는 바지가랭이가 류달리 넓은 남자바지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바지를 유심히 살펴보시자 양복점의 재단사는 요즘 다른 나라에서 바지가랭이를 넓게 만들어입는것이 류행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그런 바지를 만들었다는데 대하여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류행을 따른다고 하여 우리 사람들에게까지 다른 나라식으로 바지가랭이를 넓게 만들어주어서는 안된다고, 우리 사람들이 입는 옷은 조선사람의 풍습과 기호에 맞고 로동과 활동에 편리하게 우리 식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바지가랭이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너무 넓게 만들거나 좁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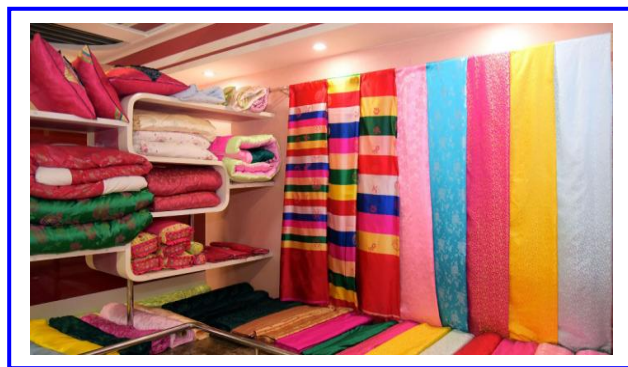
주체 89(2000)년 6 월 중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단생산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경공업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비단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비단천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비단옷을 해입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절절히 교시하시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인민은 고대로부터 비단을 짜기 시작하였으며 삼국시기에는 여러가지 비단을 생산하였다. 비단짜는 기술이 매우 높아

당시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라의 비단짜는 기술자들은 일본의 비단생산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명주실로 짠 조선의 비단은 다른 천들에 비하여 가볍고 빛갈이 우아하며 손맛이 부드러워 일찍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대적으로 수출되고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비단을 좋아하였으며 비단옷은 행복한 생활의 표징으로 되여왔다.

조선은 비단에서는 좌상이나 같다. 세계력사에 《비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비단무역로도 그 동쪽끝을 조선에 두고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조선의 비단은 그 질이 또한 최상의 수준이였고 위생학적으로도 우월하였다.

그이께서는 비단과 같은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직물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앞으로 결혼식을 하는 청년들과 환갑, 생일 70돐을 맞는 늙은이들에게는 다 비단옷감과 비단이불감을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키는데서 민족적전통을 고수하고 잘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 녀성들이 치마저고리를 늘 입도록 장려하는것과 함께 비단을 비롯한 치마저고리감을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3) 살림집과 주택생활을 민족적풍습과 생활양식에 맞게

살림집과 주택생활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거기에는 해당 민족의 고유한 심리적특성과 생활모습, 생활감정, 기술과 재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민족성이 구현된 살림집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건물에서 조선인민의 민족적정서와 풍습에 맞지 않는 편향이 나타날세라, 인민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모두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주체 68(1979)년 10월 창광거리건설이 시작되였을 때였다.

거리형성안으로부터 살림집형태와 층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로인들을 존대하고 부모들을 극진히 섬겨온 아름다운 풍속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미풍을 살려 새로 건설하는 살림집에는 로인방을 따로 예견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로인방만이 아니라 세대주방, 아이들방도 예견하고 모든 방들을 넓고 시원하면서도 특색있게 잘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든 살림집의 온돌을 온수난방으로 하되 아래목에는 관을 촘촘히 놓고 웃목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성글게 놓아야 하겠다고, 그래야 따뜻한데를 좋아하는 할머니나 애기어머니들은 아래목에서 자게 할수 있고 시원한데를 좋아하는 사람은 웃목에서 자게 하는 등 모두가 자기의 요구에 맞게 잠자리를 정할수 있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조선의 고유한 맛이 나는 훌륭한 건물로

주체 64(1975)년 6 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느 한 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건물의 모양을 바라보신 그이께서는 잘 지었다고 치하하시고나서 건물안으로 들어서시였다. 여러 방들을 차례로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방과 방사이의 접이문앞에 이르시여 문득 걸음을 멈추시였다. 일군들은 그 접이문이 최근 건축부문에서 널리 도입되고있는 문이므로 그이께서 만족해하실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유럽식접이문은 다 떼고 조선식미닫이로 고칠데 대하여 지적하시고나서 조선식미닫이가 좋다고 교시하시였다.

불고기와 돗자리

주체 74(1985)년 8 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완공된 창광거리에 있는 어느한 식당을 돌아보시였다.

불고기식사칸에 들어서신 그이께서는 아담하게 꾸려놓은 손님방을 한동안 눈여겨보시다가 저방은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불고기를 할수 있게 하자고 한것 같은데 왜 장판을 하지 않고 다다미를 깔아놓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다다미로 말하면 일본사람들이 예로부터 리용해온 방안깔개였다.

일군들이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자 그이께서는 그것은 조선식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손님들이 앉아서 불고기를 하는 방바닥에는 조선식으로 돗자리를 깔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이제 나이많은 늙은이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올수 있는데 그들은 같은 불고기를 먹어도 장판방에 돗자리를 척 깔고앉아서 먹어야 먹은것 같다고 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다시 걸려진 문패

주체 90(2001)년 7 월 중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북도 서흥군 범안리를 현지지도하실 때의 일이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새로 일떠선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꼭같이 집들이 줄지어 서있으니 어느것이 제 집인지 찾기 힘들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왜 집집마다 누구의 집이라는 문패가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문패는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있는 표식판으로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살림집들에 문패가 없으면 어느 집이 누구네 집인지 인차 가려보기 힘들다고 하시면서 살림집들에 문패를 써붙이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닷새후인 7 월 16 일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며칠전 범안리에 가시였을 때 지적하신 문패문제를 상기시키시면서 로동당시대에도 문패가 있어야 한다고 다시금 교시하시였다.

새로 낸 문

주체 46(1957)년 12 월 중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황해남도 벽성군의 어느 한 협동조합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새로 지은 마을의 살림집내부를 돌아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무엇때문에 부엌에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내지 않고 부엌에서 밖으로 돌아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은 누구도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고장사람들이 조상전래로 쓰고 살아온 집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본따서 지은 집이였기때문이였다.

그이께서는 지난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아버지밥상을 들고 드나들게 하느라고 문을 그렇게 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봉건적인 생활풍습을 없애고 우리 농민들의 생활에 편리하도록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올수 있게 문을 내주고 앞쪽으로 해빛을 받을수 있게 창문을 달아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4) 민속명절을 적극 장려하도록

조선인민이 창조하고 계승하여오는 민속명절은 조선의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조건, 절기에 따르는 농사철에 맞게 영농공정을 잘 타산하여 의의있는 날을 정한것이다.

조선의 선조들은 설명절, 정월대보름, 추석을 년중 가장 크게 맞이하는 3대명절로 정하고 오랜 력사적기간 즐겁게 쇠여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랜 력사적기간 조선인민들속에서 창조되여 전하여오는 우수한 민속명절들을 찾아주시고 현시대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민속명절의 유래도 깨우쳐주시며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명절풍습들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해마다 설명절, 정월대보름, 추석 등 여러가지 민속명절을 즐겨맞아왔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민속명절에는 윷놀이, 바줄당기기,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들이 진행되군 하였는데 그것은 집단적으로 로동의 피로를 풀고 휴식하기 위한것이라고 민속명절의 유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속은 말그대로 근로인민대중속에서 생겨나고 발전하였으며 오늘까지 전해지고있는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로동의 보람과 미래에 대한 리상을 춤과 노래에 담아 즐긴것은 근면하고 지혜로운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을 표현한것이며 조상의 산소를 돌아보고 제사를 지내는것은 례절이 밝고 의리가 깊은 우리 인민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한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지난날 착취계급이 민속을 저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는데 악용하였기때문에 오늘에 와서보면 민속에 종교적외피가 씌워지고 허례허식이 덧붙여졌는데 이런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서도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깊이 관심하신 설명절풍습

주체 86(1997)년 2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에게 설명절과 관련한 풍습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설명절이 오면 특색있는 여러가지 음식도 만들어먹고 윷놀이와 같은 민속놀이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연띄우기,

썰매타기와 같은 유희를 하군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예로부터 조선인민은 설명절을 앞두고 집집마다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음식과 설옷을 성의껏 준비하였으며 설명절에는 돌아간 조상들에게 먼저 례의를 표시한 다음 집안의 웃어른들과 마을의 로인들, 스승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모여앉아 특색있는 설음식들을 나누어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웃들과 한데 어울려 여러가지 민속놀이로 흥을 돋구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설명절과 관련된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과 풍습을 잘 살려나가도록 세심히 관심하시며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정월대보름의 유래도 알려주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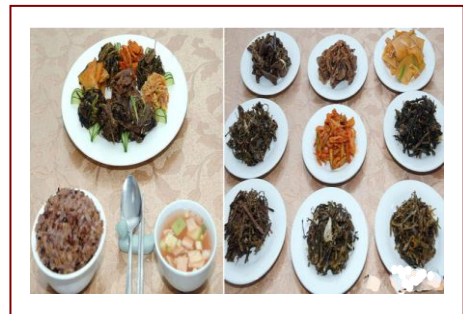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음력 1월 15일을 대보름명절로 쇠여왔다.

예로부터 조선인민은 달을 좋아하고 사랑하였으며 둥근달에 자기 소원을 싣기도 하였다. 돌이켜보면 달은 옛 시와 가요들에서 적지 않게 노래되고 그림들에서도 묘사되여왔는데 그 달에는 인민들의 소박한 희망과 념원이 반영되였다. 정월대보름달은 설명절후 첫달에 보게 되는 보름달이다. 이런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날 저녁이면 온 동리가 떨쳐나 솟아오르는 쟁반같은 둥근달을 구경하군 하였는데 그해의 정월대보름달을 먼저 본 총각에게는 달처럼 환한 처녀와 짝을 뭇는 기쁜

일이 생기고 자식이 없어 안타까와하던 부부에게는 옥동자, 옥동녀가 태여난다고 하였다.

어느해 2 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대보름이 어떤 날인지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월대보름의 유래도 설명해주시고 그 풍속도 구수하게 이야기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일군들에게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전해오는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월대보름이 어떤 날이며 무슨 음식을 만들어먹는가 하는것과 같은 상식들도 알려주며 달력이나 탁상일력에도 정월대보름이라고 쓴것이 없는데 써넣는것이 좋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추석에 묘보러 가는것은 조선인민의 오랜 풍습이라고 하시며

주체 76(1987)년 10 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오늘날씨가 어떨것 같은가고 물으시였다.

그러시고는 오늘은 추석날이여서 기관, 기업소들에서 다 쉬겠는데 추석날분위기가 서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묘지에 가는 사람들을 위한 뻐스조직이랑 다 했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추석날이면 어른, 아이할것없이 묘보러 가는 사람들로 거리가 붐비겠는데 좀전에 거리를 돌아보니 그렇지 못하더라고 하시면서

아직도 우리 일군들속에 추석날 산소에 가는것을 혁명적인 생활기풍과 맞지 않는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다고 지적하시였다.

한 일군이 묘지들이 대체로 교외에 멀리 떨어져있으므로 모두들 아침일찌기 떠나며 철도에서는 림시렬차를 편성하여 운행하고 려객자동차사업소들에서는 방향별로 뻐스를 집중배차하고있기때문에 그전처럼 붐비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추석날에 묘보러 가는것을 두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추석날에 조상들의 묘를 보러 가는것은 례절이 밝고 의리가 깊은 우리 인민들의 품성을 그대로 반영한것인데 이런것을 다 나쁘다고 볼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 추석날 묘에 가는 문제를 두고 걱정하시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어느해 추석전날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석날의 뻐스보장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일군들은 온 나라가 당창건기념일을 보다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들끓고있던 때여서 산소에 간다는것자체도 생각되는 문제인데 뻐스까지 보장해준다는것은 혁명적인 생활기풍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일군들은 자기들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엄하게 질책하시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래일 산소에 가는 사람들에게 뻐스를 보장하는 조직사업을 잘하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추석에 묘보러 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풍습이라고, 묘에 갈 때에는 늙은이도 가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식구가 간다고, 그런데 뻐스조직을 안하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는가고, 우리가 조상전래의 풍습도, 인민들의 생활감정도 모르고 혁명성 한가지만 주장한다면 인민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르겠는가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앞으로 추석날이 오면 그저 묘보러 갈 사람들은

가라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교외뻐스운행도 조직하고 필요하면 일군들의 승용차까지 뛰게 하며 거리가 먼데는 철도에서 림시렬차를 편성하여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일일이 가르쳐주시였다.

5) 민속놀이를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조선의 민속놀이는 오랜 력사적기간 조선인민의 다정다감한 생활속에서 창조된것으로 하여 그 종류가 다양할뿐아니라 놀이마다 특색이 있어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하는 놀이이다.

조선의 민속놀이는 체육적성격을 띤 놀이도 있고 유희, 오락적인 성격을 띤 놀이, 남자와 녀자들이 다같이 즐길수 있는 놀이, 어린이놀이, 어른놀이, 계절에 따라 그 어디에서나 즐길수 있는 놀이 등 그 종류만 하여도 수백여가지나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속놀이를 장려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이 민족문화전통을 빛내이며 조선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헤아려보시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묘리와 묘술이 있어야 한다

주체 73(1984)년 12 월 하순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종합오락기구견본품을 보아주시였다. 그 견본품은 하나의 함에 4 가지 오락기구(장기, 윷, 꼬니, 주패)가 들어있는것이였다.

오락기구를 한동안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윷가락을 집어드시고 윷놀이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오락의 하나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윷놀이는 남녀로소를 물론하고 누구나 다 놀수 있는 대중오락으로서 오랜 옛날부터 즐겨 놀아왔는데 지금은 윷놀이를 하는것을 볼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에게 윷놀이를 할줄 아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윷놀이를 할줄은 알지만 재미가 없기때문에 잘 놀지 않는다고 말씀올리였다.

이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웃으시면서 그건 윷놀이의 《윷》자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라고, 윷을 논다고 해서 그저 윷가락을 집었다가 던지면 되는것이 아니라고, 윷놀이도 다른 오락과 마찬가지로 묘리가 있고 묘술이 있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윷놀이가 재미없기때문에 잘 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윷놀이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윷놀이의 진미를 모르기때문이라고 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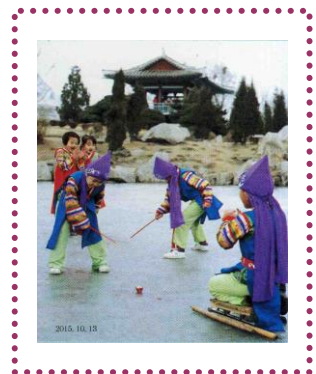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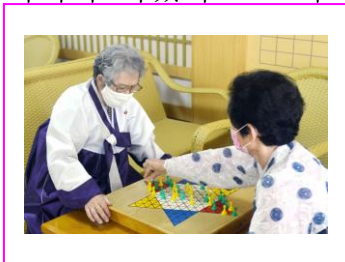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이날 윷놀이와 같은 민속오락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민속오락을 널리 장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크게 보신 작은것

주체 71(1982)년 11 월 6 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장기판과 꼬니판 같은 오락기재를 많이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장기와 꼬니는 사람들의 머리를 쓰게 하는 좋은 오락이라고, 그래서 나는 장기판과 꼬니판 같은 오락기재를 많이 만들어

인민들에게 팔아주라고 하였다고, 그런데 지금 장기판이나 꼬니판 같은 오락기재를 만들어 팔지 않고있다고 하시면서 장기판규격을 여러가지로 만들어 올려오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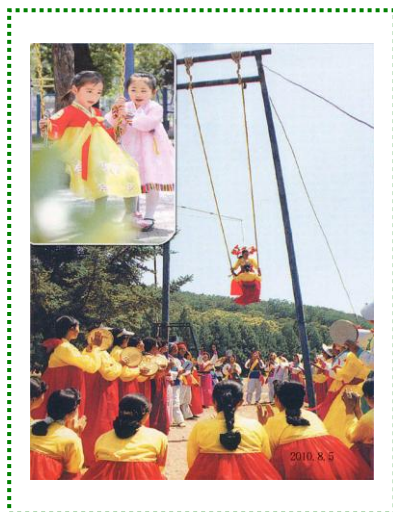
그이께서는 팽이와 연도 만들어 팔아야 하겠다고, 그전에는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이르는 곳마다에서 팽이도 치고 연도 띄우군 하였는데 최근에는 팽이와 연을 만들어 파는데가 없다보니 아이들이 팽이를 치거나 연놀이를 하는것이 다 없어졌다고, 앞으로 팽이와 연을 만들어 상점에 내다놓고 팔아주어 겨울에 아이들이 팽이도 치고 연놀이도 하게 하여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창광거리에 오락기구상점을 하나 내오고 경영하여야 하겠다고, 창광거리에 내오는 오락기구상점에서는 주패목도 팔아주고 장기판도 팔아주며 연과 팽이도 팔아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근로자들이 정서생활도 할수 있으며 평양시의 풍치도 좋아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에게 매우 좋은 운동

주체 44(1955)년 5월 어느날 평양제1중학교의 한 교원을 만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네는 좋은 민족체육종목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그네는 녀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라고, 녀성들이 그네를 뛰면 팔과 다리, 배힘을 키우고 몸을 날래게 하며 용감성과 대담성, 강한 정신력을 배양하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그네는 지난날 유격구마을에서도 많이 뛰였다고, 우리 인민들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땅에 쫓겨가서 살면서도 민족성을 잃지 않고 그네경기도 하고 씨름경기도 하면서 일제를 쳐부실 힘과 의지를 키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그네나 씨름은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체육이고 좋은 민족적풍속이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귀중히 여기고 계속 장려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단순한 놀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주체 87(1998)년 10 월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어린이민속놀이를 널리 장려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그전에는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유희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놀이를 하는것이 없다고, 그전에는 어린이들이 강물우로 돌팔매질을 하여 돌이 물우로 여러번 스쳐지나가게 하는 놀음도 많이 하였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최근에는 어린이들의 유희에 대한 책도 별로 나오는것이 없는것 같다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어린이들이 민속놀이를 하는것을 단순한 놀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배양해나가게 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어린이들속에서 민속놀이를 적극 장려하여야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살려나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모란봉에서 울린 대황소상 금소방울소리

주체 91(2002)년 1 월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씨름경기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잘 조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민족의 우수한 체육종목의 하나인 씨름은 원래 사람들의 몸을 튼튼히 단련시키고 인내성과 투지를 키워주는 좋은 운동으로서 지난 몇해동안 온 나라의 관심속에 전국적인 민족씨름경기로 진행되여왔다.

그런데 씨름경기가 응당한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여 점차 사람들속에서 인기를 잃고있었다.

이러한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씨름경기는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하는 특색있는 종목인데 인기있게 조직하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민족씨름경기조직자들이 여러가지로 머리를 쓰게 하며 중앙과 지방의 해당 기관들이 이 사업에 관심을 돌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시상품으로 송암명기소목장의 소를 해결해주겠으니 인기를 회복하라고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뜻깊은 이날을 계기로 민족씨름경

기는 그 내용과 품격을 한계단 더 높여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로 발전되게 되였다.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에서 1 등을 한 선수에게는 대황소와 함께 특색있게 만든 금소방울을 상으로 주게 되여 경기는 자못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였다.

누가 대황소와 함께 금소방울의 주인이 되는가.

온 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주체 91(2002)년 제 1 차 대황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가 모란봉의 씨름경기장에서 진행되였다.

경기는 20 대, 30 대의 청년들뿐아니라 칠순을 바라보는 로인들도 참가하여 더욱 이채를 띠였다.

그날 인민군군인들이 새로 건설한 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저녁무렵에야 돌아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오늘 진행된 씨름경기가 어떻게 되였는가고, 황소는 얼마나 큰것이였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900kg 짜리 황소라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며 말그대로 대황소라고, 잘됐다고 거듭 외우시면서 이런 대황소상경기를 전통화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유서깊은 모란봉에서 대황소상 금소방울소리가 온 나라에 울리게 되였으니 그게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6) 민족적례의도덕의 계승발전에도 힘을 넣어

매개 민족들은 자기 민족성원들 호상간의 공동생활과정에 민족집단을 유지하고 민족성원들 호상간에 서로의 리익을 지켜주고 친근하게 대하는

교제의 규범을 만들어 지켜오게 되였으며 이 과정에 례의도덕은 민족적특성을 띠고 발전하게 되였다.

조선인민의 전통적인 례절은 인사성과 문화성이 철저히 구현된 고상하고 아름다운 례절이며 섬세한 언어적표현과 대상과 환경, 조건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풍부하게 규제되여있는 우월한 례의도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가정례의범절을 잘 지키고 사람들속에서 악수하는 버릇을 없애고 조선식 례법을 적극 장려하며 일군들이 례의도덕을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선인사법의 우수성

력사기록에 의하면 조선인민은 고대이래 오랜 세월 사람들사이에 서로 만나거나 헤여질 때 머리를 숙여 례의를 표시하는 조선절을 고유한 인사례법으로 지켜왔다. 여기에는 성품이 강직하면서도 정직하고 마음씨 고운 조선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이 그대로 비껴있다.

주체 52(1963)년 2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인사법의 우수성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절을 기본인사법으로 삼아왔다고 하시면서 인사대상과 장소에 따르는 인사법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길가에서 친구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는 머리를 가볍게 숙여 인사를 나누었지만 로인이나 웃사람을 만났을 때에는 반드시 존경의 뜻을 담아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물으면서 허리굽혀 인사하군 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차례에 걸쳐

조선민족이 창조한 조선인사법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륜도덕의 시초

주체 56(1967)년 10 월말 한 녀성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금 사로청(당시)에서는 청소년학생들이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잘 받들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이 태여나면 누구나 다 제일 처음으로 부모들의 슬하에서 몸도 마음도 키우며 세상리치를 배우게 된다고, 그런 점에서 볼 때 부모는 사람들의 첫 스승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그렇기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잘 모시고 받드는것은 인륜도덕의 시초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모를 존경하고 극진히 섬겨온 조선민족의 아름다운 도덕품성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잊지 말고 써보내야 할것

주체 51(1962)년 양력설을 즐겁게 보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명절기간에 있은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계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들이 새해를 맞으며 대학의 교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동무들 그리고 고향에 있는 부모형제들과 친척들에게 년하장을 보낸것은 아주 잘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해를 맞으며

웃사람들과 동무들에게 새해인사를 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미풍이며 아름다운 례의도덕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예로부터 례의범절이 밝은 조선인민은 해마다 설날이면 집안의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한 다음 마을의 나이많은 로인들과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설인사를 드리였다. 이와 함께 멀리 떨어져 사는 친척의 웃어른이나 스승들에게는 새해를 축하하는 문안의 인사말을 적은 글을 보내는 형식으로 설인사를 하였다.

그이께서는 학생들을 둘러보시며 년하장을 쓰는것이 간단한것 같지만 거기에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성의가 깃들어있다고, 년하장을 쓰지 않는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과 성의가 부족하기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새해가 다가오면 미리 준비를 하였다가 년하장을 보내야 할 사람들에게 잊지 말고 써보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7) 민족음악무용의 계승발전에 큰 힘을 넣어

조선은 세계적으로 음악이 먼저 발전한 나라이며 조선음악은 우아하고 섬세하다. 조선의 민족악기 역시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민족적형식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한 조선민족무용은 인민들의 민족적인 생활정서와 풍습을 가장 집중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때문에 인민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민족음악무용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음악무용유산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키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민족악기개량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1970 년대초에 어느 한 예술단체의 민족기악중주조를 지도하시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악기 와공후를 가야금처럼 눕혀놓고 연주하도록 만들어보라고 과업을 주시였다.

그후 와공후를 개량한 새 민족악기의 시제품이 나왔을 때에는 몸소 연주를 들어보시며 악기를 만든 제작자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족점을 즉석에서 깨우쳐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새 민족악기가 완성되였을 때에는 친히 악기의 이름을 **《옥류금》**이라고 지어주시였으며 어느때인가는 민족죽관악기를 새롭게 제작하는데 쓰라고 나라의 귀중한 은도 보내주시고 또 어느때인가는 5 음계체계였던 가야금을 7 음계체계의 가야금으로 바꾸고 음역도 넓히도록 하시였다.

전국의 모든 악기생산자들과 악기연주가들이 참고로 볼수 있는 《악기제작학》을 하루빨리 집필출판하도록 하신데 이어 악기용재림사업소도 따로 내오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신분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이시다.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어은금

어은금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주체 51(1962)년 어은동군사야영훈련의 나날에 몸소 악기의 제작을 발기하시고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으며 이름도 지어주신 사연깊은 악기이다.

어느날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대학에서부터 시작하였던 악기제작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용사들이 불타는 고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서 학생들이 자체의 힘으로 악기를 만들수 있도록 적극 고무하여주시였으며 몸소 실천적모범으로 악기제작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악기의 형태를 규정하고 재료를 고르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악기줄을 만들고 민족적인 음색을 살리도록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속에 학생들은 수십점이나 되는 민족악기들과 함께 새형의 현악기를 만들어낼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학생들이 애써 만들어낸 현악기를 보아주시면서 군사야영훈련을 하면서 어은동골안에서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어은금》**이라고 부르는것이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몸소 악기의 이름도 지어주시였다.

민속무용 《돈돌라리》가 완성되기까지

《돈돌라리》춤은 함경도의 동해바다가지역들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이 지방특유의 민속무용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방적색채가 매우 진한 민속무용 《돈돌라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주체 74(1985)년 3 월 1 일 무대 및 영화예술부문 일군들앞에서 하신 담화에서 춤과 음악의 특색을 잘 살릴수 있는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민속무용에서 지방적특색을 잘 살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은 마땅히 어느 지방의 풍속을 보여주는것인지 똑똑히 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민속무용작품들이 발굴되여 무대에 오를 때마다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고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였다.

민속무용 《돈돌라리》에 대해서도 현실의 요구에 맞게 형상하여 잘 살린다면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일깨워주시며 무용창작사업을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래의 《돈돌라리》의 음악과 춤가락을 살리면서 그것을 조선인민의 생활감정에 맞게 발전시키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심으로써 민속무용 《돈돌라리》는 어깨춤이 절로 나고 흥취나는 특색있는 춤으로 완성되여 조선인민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을 보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6(1997)년 6 월 14 일 민속무용과 민족음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하여 국립민족예술단에서 새로 창조한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을 보시였다.

민속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은 씩씩하고 우아하며 발랄하고 흥취있는 민속무용과 특색있는 민족음악으로 자기 조국과 향토를 무한히 사랑하며 그를 지켜 용감히 싸운 평양성사람들의 애국충정과 슬기롭고 근면한 선조들의 창조적인 로동생활, 아름다운 생활풍속과 풍만한 정서, 앞날에 대한 지향과 념원을 보여준 독특한 형식의 예술작품이였다.

민속무용조곡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립민족예술단 창작가, 예술인들이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독특한 민속무용조곡을 훌륭히 형상한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우리는 민족문화유산을 우리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특히 무대작품에 시대정신이 옳게 구현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족무용조곡 《평양성사람들》은 옛날것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 아니라 로동당시대에 새로 창조한 작품이라고, 이 작품을 조금도 흠잡을데 없이 완성해놓으면 후날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로동당시대에 창조한 우수한 작품들을 두고두고 자랑하게 될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민속무용 《봉산탈춤》을 보아주시며

주체 92(2003)년 어느 여름날 황해북도의 어느 한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곳 농장원들이 추는 민속무용 《봉산탈춤》도 보아주시고 만족해하시며 수십년전에 보시였던 봉산탈춤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적재부를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민속무용을 적극 장려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어 전통적인 민속무용을 널리 보급하고 더욱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인 봉산탈춤은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현대적미감에 맞게 더욱 훌륭히 완성되여 조선인민의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는 민속무용으로 되게 되였다.

다시 태여난 옛춤

주체 59(1970)년 3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대극장에서 3.8 국제부녀절 60 돐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 시연회를 보아주시였다.

공연이 끝난 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연종목에 《사당춤》은 왜 빠졌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이 그 춤은 절간에서 나온 천박한 춤이기때문에 넣지 않았다고 그 사연을 말씀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더니 봉건시기 우리 나라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뜨락을 무대로 삼고 노래와 춤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사당》이라고 불렀다고, 《사당춤》에는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춤가락과 민족적인 흥취가 적지 않게 반영되여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사당춤》이라고 부르는것이 쉽게 리해되지 않는다면 《3인무》라고 하여도 된다고, 이번 공연종목에 무용 《3 인무》를 넣고 이미 준비한 배우들을 출연시켜야 하겠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세월의 락엽속에 묻혀 사라져버릴번 하였던 옛《사당춤》은 《3인무》로 다시 태여나게 되였다.

바뀌여진 《무사춤》의 주인공

주체 74(1985)년 3월 1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속무용 《무사춤》을 보아주시고 춤이 좋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창작가들은 기쁨을 감출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수가 한명 나와서 북을 치게 한것을 좀 고치는것이 좋겠다고 이르신것이다.

뜻밖이였다. 자기들로서는 동방천년강국으로 위용떨친 고구려의 위력을 처음부터 무대우로 위풍있게 나오는 고구려장수에게 체현시키고 거기에 매력을 느끼며 기발한 착상이라고 은근히 자부하고있었던것이다.

무엇이 잘못되였을가 하고 창작가들이 서로 마주보는데 그이께서는 처음에 장수가 혼자 나와서 북을 치니 마치 을지문덕과 같은 큰 장수처럼 보인다고, 관람자들로 하여금 그를 을지문덕과 같은 큰 장수로 착각할수 있게 형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력사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력사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긴 가르치심이였다.

고구려의 국력이 강했던것은 바로 한두명의 장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민이 무예를 숭상하는 기풍을 세우고 국방에 분발해나섰기때문이였다.

그후 《무사춤》의 주인공은 개별적장수가 아니라 고구려무사들로 바뀌였다.

어깨장단이 제일 좋다

주체 54(1965)년 5 월 중순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내기가 한창인 어느 한 농장포전앞에 잠시 차를 세우시였다.

마침 그곳에서는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모내기 쉴참에 꽹과리와 새납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어깨춤을 추고있었다.

어깨춤은 조선인민이 오랜 옛날부터 로동의 쉴참이나 민속명절을 계기로 즐겨 추어온 대중적인 군중무용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풍년벌을 가꿔가는 그들의 모습도 좋지만 로동의 희열속에 펼쳐놓은 춤판이 더더욱 마음에 드시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이때 동행한 한 일군이 그이께 어깨춤이 그렇게 좋으신가고 조용히 물었다.

그이께서는 어깨춤이 좋다고, 얼마나 건드러진가고 하시면서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는 그저 어깨장단이 제일 좋다고 기쁨에 넘친 어조로 교시하시였다.

2. 력사유적유물의 보존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서 중요한것은 력사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력사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력사유적유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고증하며 국보적인 유적들을 잘 꾸려놓아야 합니다.》

력사유적유물을 잘 보존관리하는 사업은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물질적자료들을 발굴보존관리하는 사업이며 이미 계승되여오던 력사유적유물들이 그 어떤 력사적조건과 요인에 의하여 사라졌거나 희미해진것들을 원상복구하고 발굴복구한 력사유적유물들을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에 기초하여 보존관리하는 사업이다.

력사유적유물에는 인민들이 창조한 문화전통이 반영되여있으며 민족문화는 바로 민족적인것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민족적형식을 옳게 살려나가려면 력사유적유물에 대한 연구사업을 폭넓게 벌려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알맹이를 찾아내여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민족적바탕우에서 풍만하게 발전시키는데 살려써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에서 민족성이 확고히 고수되게 되고 민족문화는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된다.

력사유적유물의 보존관리가 민족성고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유적유물을 나라와 민족의 재보로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발굴복구하며 잘 보존관리하도록 하는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를 돌아보시며

주체 97 (2008) 년 12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리원시에 건설된 민속거리를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넓은 부지에 자리잡고있는 민속거리에는 조선민족이 창조한 자랑스러운 력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과 민속음식점, 민속오락장들이 배치되여있었으며 훌륭히 꾸려진 유원지가 펼쳐져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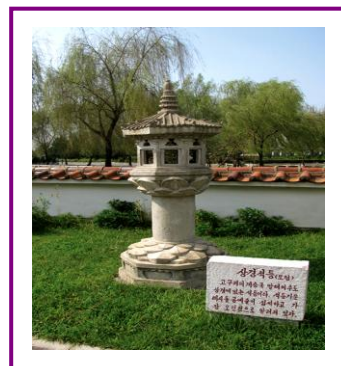
안내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치아름다운 경암산기슭에 민속거리를 형성하고 민속거리를 인민들이 즐겨찾는 문화휴식장소로 꾸린것은 잘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해당 력사적시기 건물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게 꾸려야 한다고 하나하나 일깨워주시였다.

고구려시기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와와 단청, 고티가 나는 벽체에 대하여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그이께서 얼마나 알기 쉽게 가르쳐주시는지 일군들은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민족의 기상과 슬기를 떨쳐주시려는 절세위인의 가르치심은 민속거리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계속되였다.

연탄군에 있던 진품을 그대로 옮겨다놓은 고인돌무덤을 보아주신데 이어 경주에 있는 첨성대모형을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한하다고, 실물을 보지 못하고 만드느라 애를 먹었다는데 그럴것이라고 하시며 일군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였다.

어느 한 벽화를 보아주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제목도 잘 달고 아주 마음에 든다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우리 민족이 제일 강하였던 시기는 고구려때였다고 하시며 우리는 새 세대들에게 천년강국인 고구려의 력사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그들이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갈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력사를 거쳐 발전풍부화된 고유한 조선민속에는 슬기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구미와 기호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이 진하게 반영되여있다고 하시면서 우수한 민속전통을 살려나가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정광사를 돌아보시면서

주체 96(2007)년 8 월 어느날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정광사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당대의 시대상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 진귀한 회화작품들을 비롯한 가치있는 력사유물들이 원상그대로 소장되여있는 이곳은 국보적의의가 크다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 우리나라에는 귀중한 력사문화유적들이 많다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살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冥府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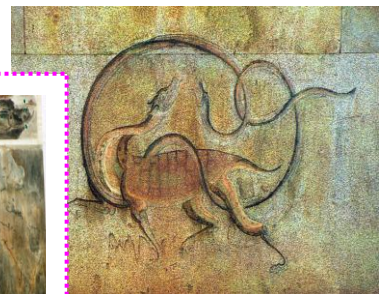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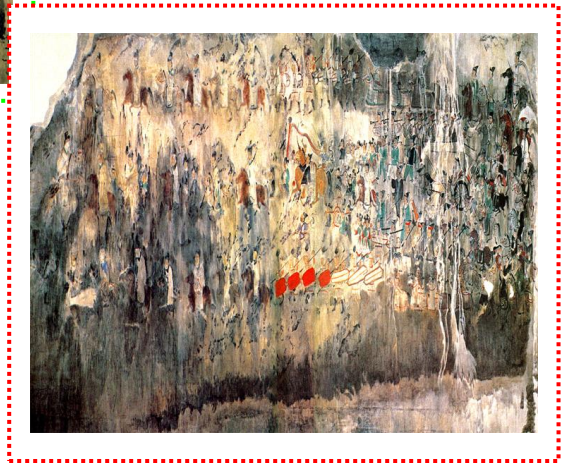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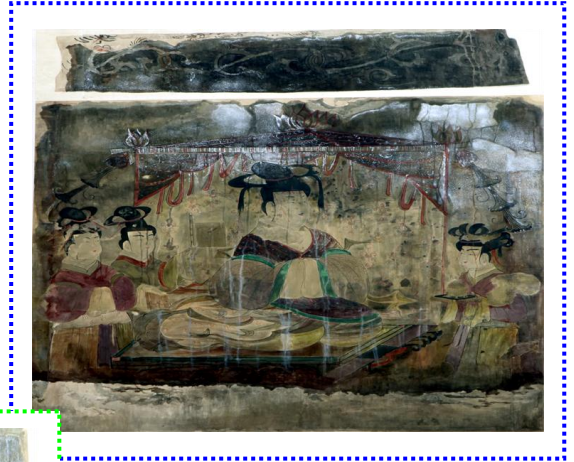
기록영화에 담겨진 고구려벽화무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문화유산들을 발굴하고 보존관리하는 사업과 함께 유적, 유물들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나 화첩, 책들을 만들어 슬기로운 조선민족의 지혜와 재능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이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뜻에 의하여 고구려벽화무덤들이 기록영화에 담겨질 때의 일이다.

당시 해당 부문의 일군들은 영화촬영에서 제기되는 많은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찾지 못하고 주저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선조들이 남긴 유물들을 잘 보존하고 후대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일인데 비용이 좀 많이 들면 뭐라는가고 하시면서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각별한 관심속에 전국각지에 분포되여있는 고구려벽화무덤들을 영화화면에 옮기기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정방산을 찾으신 사연

주체 62(1973)년 4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일군들과 함께 정방산을 찾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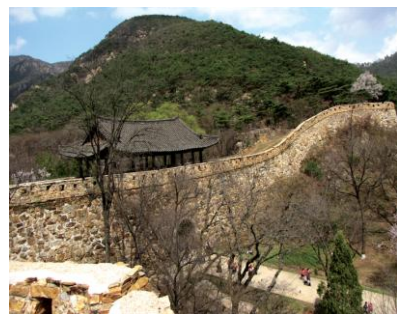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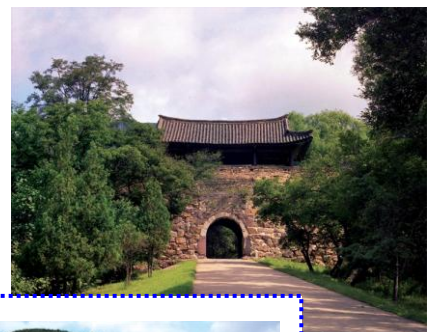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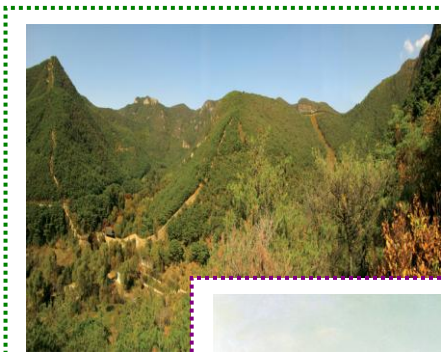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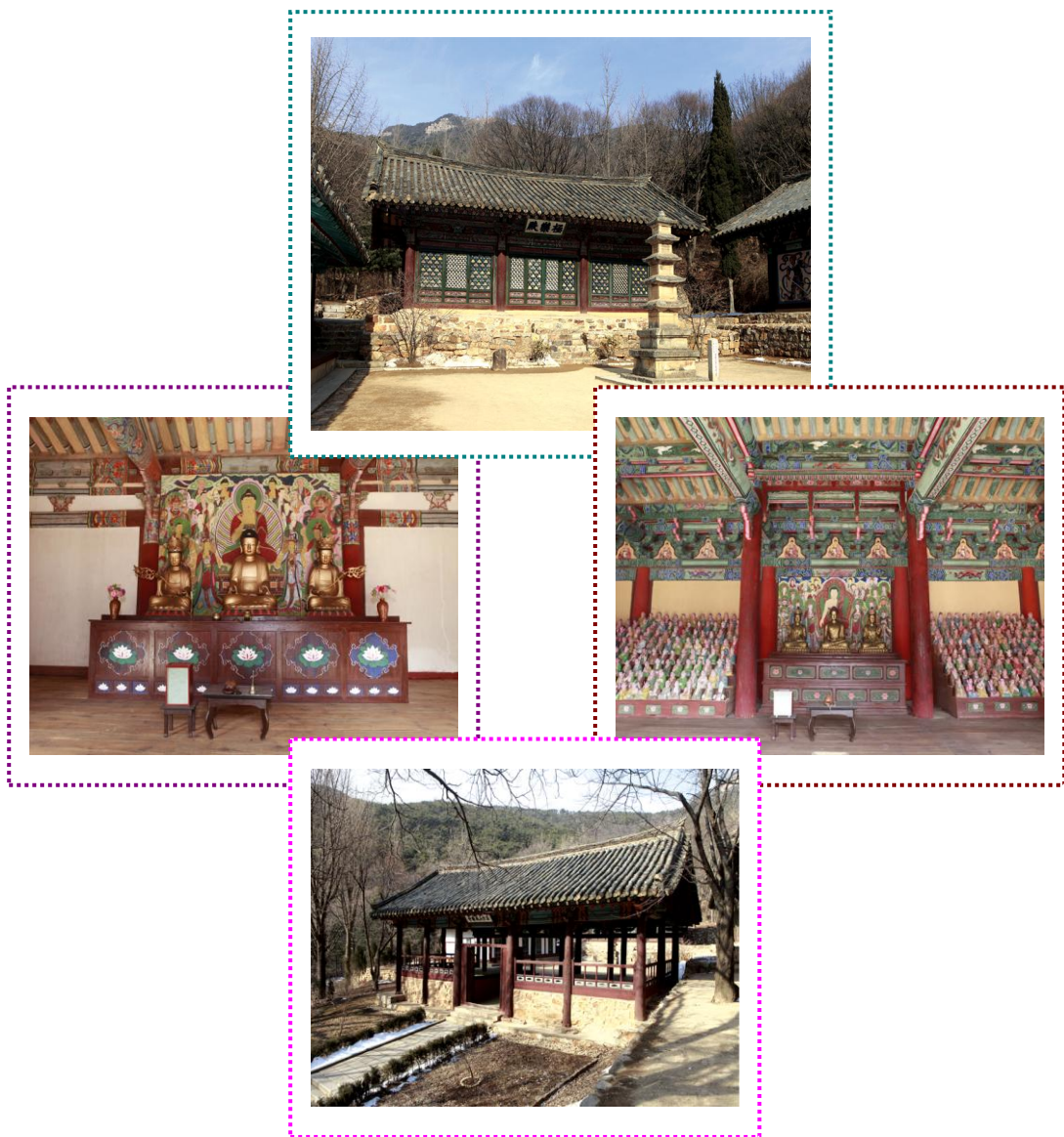
정방산성 남문앞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정방

산의 험한 산세를 리용하여 성을 잘 쌓았다고 하시면서 정방산성은 나라를 지켜싸운 우리 선조들의 애국심뿐아니라 당시의 성곽축조술과 그 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성불사를 돌아보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문화유적유물보존사업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어떻게 살려내겠는가를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성불사의 여러 건물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철제기술과 건축술에 대해 해박한 식견으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불교사원을 전후 문화유적을 원상대로 복구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옛 모습그대로 복구하였다고 하시면서 민족문화유산을 대하는 우리 당의 립장에 대해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고, 자기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알아야 사대주의가 나오지 않고 애국심이 높이 발양되게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심원사를 찾으시여

주체 92(2003)년 2 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심원사를 찾으시였다.

오늘도 1 000 여년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 심원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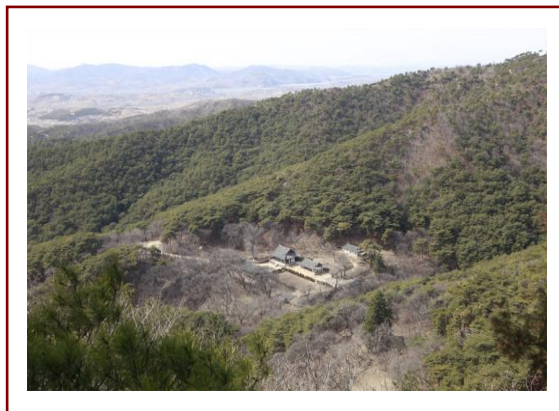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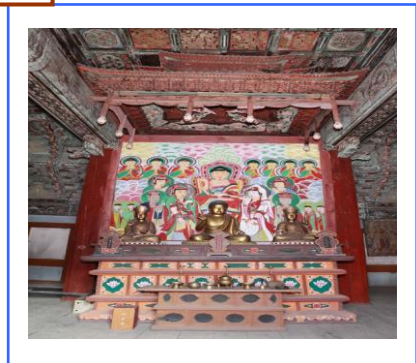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과 뛰여난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문화유적이다.

이날 심원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며 절간의 내부와 외부를 주의깊게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조들의 높은 단청술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은행나무앞에서 또다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무를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다른 절간들에 가보면 느티나무가 많은것이 특징인데 심원사에는 느티나무를 심지 않고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새겨듣는 일군들은 누구나 스쳐지나는 절간주변의 나무들에까지 깊은 주의를 돌리시는 그이의 세심한 관찰력에 다시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심원사는 가치있는 력사유물들이 원상그대로 보존되여있는 국보적의의가 큰 유적이라고 하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는 문화유적이 많다고,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살려나가며 우리 인민들에게 그를 통한 교양을 잘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석왕사를 찾으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7(1998)년 5 월 3 일 명승고적지인 석왕사를 찾아주시였다.

석왕사의 골짜기들을 돌아보시며 이곳을 근로자들의 휴양 및 료양지로 더 잘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그이께서는 큰 느티나무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그 《왕》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아래우 골짜기에 느티나무가 숲을 이룬것이 장관이였다.

관리성원이 그이께 이 나무는 600 여년전부터 자랐고 밑둘레만 하여도 6.8m 나 되며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되여있다고 설명해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큰 나무는 보기드물것이라고,

느티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될만 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 느티나무를 화보와 화첩 같은데 널리 소개하며 잘 보호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러시고 일군들에게 석왕사의 래력에 대하여 들려주시였다.

석왕사는 고려말기에 처음 세웠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더 확장하여 지은 큰 절간이였다. 그때는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이 50 여채가 골짜기에 자리잡고있었다.

그런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무참히 파괴되여 지금은 몇채의 건물만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의 교시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화유적을 원상복구하고 잘 보존관리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우리 나라의 오랜 력사와 선조들이 이룩한 찬란한 민족문화를 잘 알려주고 그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도 그렇지만 건축연구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석왕사의 유적들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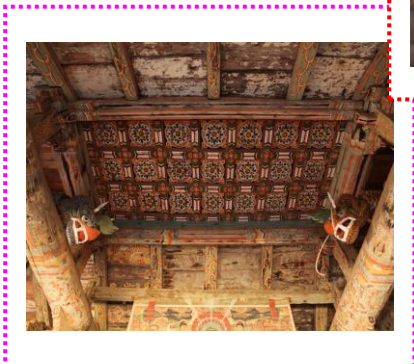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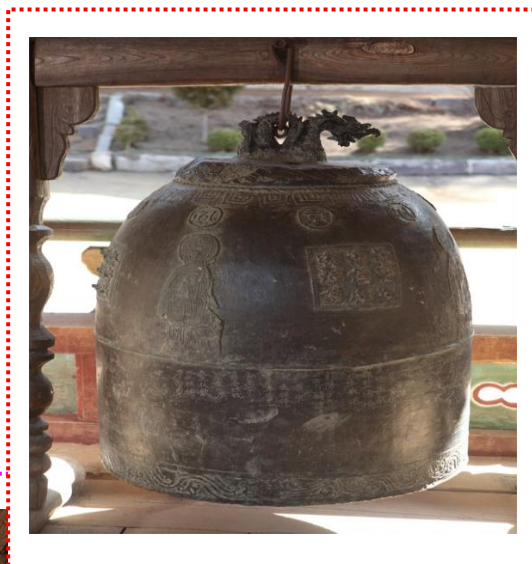
개심사의 오랜 력사유물을 귀중히 여기시며

주체 85(1996)년 6 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칠보산에 오르시여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개심사부터 찾으시였다.

조선민족의 우수한 건축술과 유구한 력사가 깃들어있는 문화유적들에 대한 해설을 주의깊게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귀중한 문화적재보를 잘 보존관리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웅전에로 발걸음을 옮기시였을 때였다. 대웅전안에는 해설원이 목탁을 쥐고 불상앞에 서있었다.

이윽토록 그의 모습을 지켜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내려오는 과정에 중들의 손때가 질게 배인 목탁도 보아주시였다.

개심사의 오랜 력사유물을 귀중히 여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에도 이곳을 찾으시여 건물의 단청을 옛 모습그대로 보존하며 개심사를 잘 관리할데 대해 교시하시면서 그 대책도 몸소 세워주시였다.

량천사를 찾으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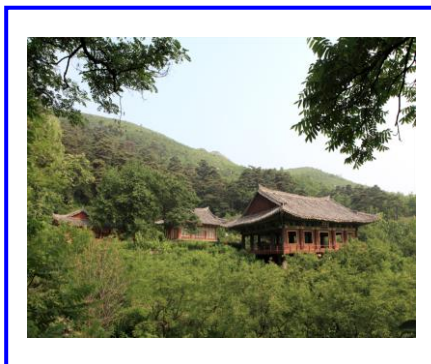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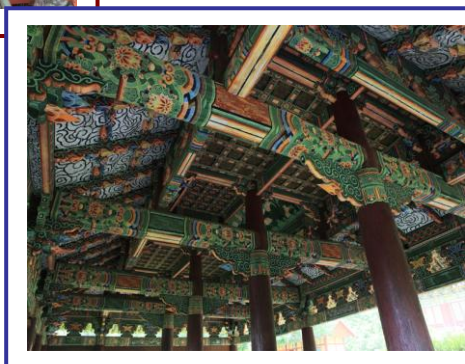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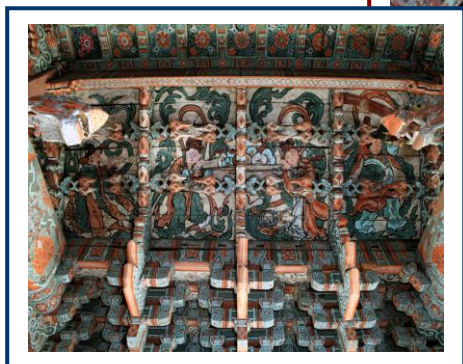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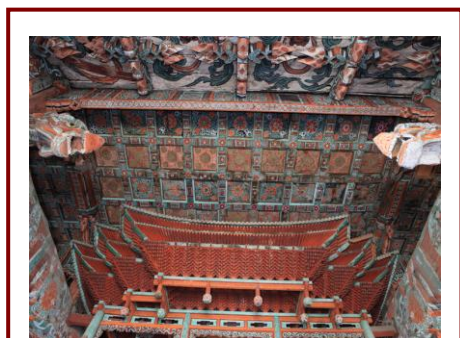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91(2002)년 6 월 어느날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량천사를 몸소 찾아주시였다.

량천사는 753 년에 건설된 오랜 건축물로서 그 규모와 력사에 있어서 조선에서 손꼽히는 절의 하나이다.

그날 량천사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천사에는 당대의 시대상을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는 진귀한 회화작품들을 비롯한 가치있는 력사유물들이 원상그대로 소장되여있으므로 국보적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는 우리 나라에는 귀중한 력사문화유적들이 많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력사문화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하고 그를 통한 교양을 잘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애국심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우리 인민의 우수한 건축술과 뛰여난 예술적재능이

깃들어있는 력사문화유적들은 나라의 귀중한 문화적재보인것만큼 보존관리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깊은 관심을 돌리신 금야은행나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92(2003)년 4월 8일 금야군에 있는 안불사를 찾으시였다.

안불사안팎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단청을 원상대로 고전미가 나게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문화유적유물보존사업에서 력사주의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킬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절간우에 가지를 드리우고있는 은행나무에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래 자란 느티나무는 보았지만 이렇게 큰 은행나무는 처음본다고, 은행나무가 너무 희한하여 자신께 보여주고싶었다는데 오늘 와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희한한 나무를 보지 못할번 하였다고 정겹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나무에 은행이 얼마나 달리는가고 물으시였다.

한해에 열매를 300 kg정도 딴다는 관리원의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대단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산좋고 물맑고 공기 또한 맑은 안불사주변에 휴양소를 건설하여 농사짓느라 수고가 많은 농민들을 휴양시킬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떠나시기에 앞서 오랜 력사를 가진 안불사와 금야은행나무에 대한 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당부하시였다.

맺 는 말

력사란 먹으로 지울수도 없고 불로 태울수도 없으며 검으로 찢을수도 없다.

허나 력사는 그 창조자인 인민대중을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 애국심이 빛을 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는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셨을 때에야 참되게 정립되고 후세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듬어보며 조선인민모두가 찾게 되는 또 하나의 력사의 진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조선에서 민족문화유산보호사업은 오늘날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있으며 조선인민은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지니고 신심드높이 전진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조선의 우수한 민족음식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해마다 전국조선옷전시회를 성황리에 진행하도록 하시였으며 명절날과 휴식날이면 연띄우기, 장기놀이, 씨름을 비롯한 흥겨운 민속놀이도 장려하도록 하시여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더욱 빛내여주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은 민족의 넋이 살아 고동치고 민족의 향취가 넘치는 나라로 세세년년 누리에 자랑떨칠것이다.